번호 : 경기마00107 |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발 일 : 2011.6.1 | 간 별 : 격월간 | 발행인 : 박공영
집 인 : 박공영 | 발행처 : 우리꽃
행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TEL_031)634-7990 FAX_031)634-7991
영업소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
TEL_031)712-7001,7119 FAX_031)712-7991

우리넷

5 6
격월간
기간행물 등록 27호 Vol.49

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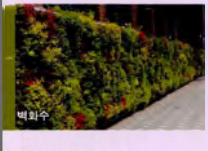
www.uriseed.com

CONTENTS

나티컬쳐 ② ····· 1
현장가이드 ····· 2 3
품종갤러리 ····· 4 5
리더스초이스 ····· 6
우리꽃명품-3 ····· 7
테마시리즈-2 ····· 8~11

특집 ····· 12
우리꽃과 사람들 ····· 13

월드리포트 ····· 14
광고 ····· 15



우리꽃따라잡기 ····· 16

나티컬쳐, 그 문화로의 제언 ②

옥상정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제 옥상정원은 흔한 테마가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많은 현장에서 완공 후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옥상조경은 이미 정원이라기보다는 녹지로 표현되어야 하기나 옥상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인은 옥상정원을 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기능성에 의존한 결과이다. 또 다른 원인은 지속가능한 동력의 부재에 있다. 많은 기관에서 지원된 옥상정원은 준공이후에 시민의 품으로 아니, 그 건물의 최소한의 소비자에게로 이용과 관리의 주체가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고 애연가들의 휴게 공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원의 구성요건이 문제가 된다.

첫째, 땅은 일굴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혹은 인위적으로 유기물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토양이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경우 경량의 상토를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인공의 유, 무기 토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경량이지만 양분의 용탈과 미량요소가 부족한 토양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물을 대부분 배우 많이 흡수하고 또 건조가 지속되면 다시 물을 공급하더라도 쉽게 물을 받아주지 않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실체에 알맞은 옥상용 용토를 개발, 룰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최소 몇 년간의 실험과 현장적용의 결과를 가지고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기존에 적용된 여러 복수의 옥상정원의 토양을 채취해 각 구성요소별 토양을 분석 물리력과 화학적 안정은 물론 미량요소의 유지보충까지도 데이터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설계시 숙근초를 비롯한 관목과 다년생의 적용을 줄여야 한다. 최소한 3&3의 룰은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기존에 실렸던 '현장리포트' 코너를 좀 더 강화하여 실제 현장 조경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조경기법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하얀 시멘트옹벽을 아름다운 수직정원으로

중랑구 SH아파트 옹벽 녹화공사

상록잔디패랭이, 적엽철경이, 세덤류, 흰줄무늬대사초, 삼색조팝 등 다양한 식물들이 조합되어 있다.

벽화수를 이용하여 그동안 인천교육청, 남산1호터널, 해남주차장 등의 옹벽녹화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랑구 SH 아파트 옹벽을 벽화수를 이용하여 녹화하기로 하고 2010년 상반기에 설계에 들어갔다.

현장여건은 대부분 양지이고 적용수종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여태까지 벽화수 현장 중 제일 많은 식물을 적용하였다. 상록잔디패랭이, 꽃잔디, 붉은애기풍의비름, 물싸리 등 꽃이 좋은 식물과 황금조팝, 삼색조팝, 적엽철경이, 무늬돌나물, 금강애기기린초, 흰줄무늬대사초 등 잎의 질감이 좋은식물, 맥문동, 백두산애기기린초, 상록애기기린초 등의 상록성식물 등 약 20종의 식물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미리 2개월 전부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벽화수에 식물을 배치한뒤 하우스에서 재배에 들어가 어느정도 녹화가 된 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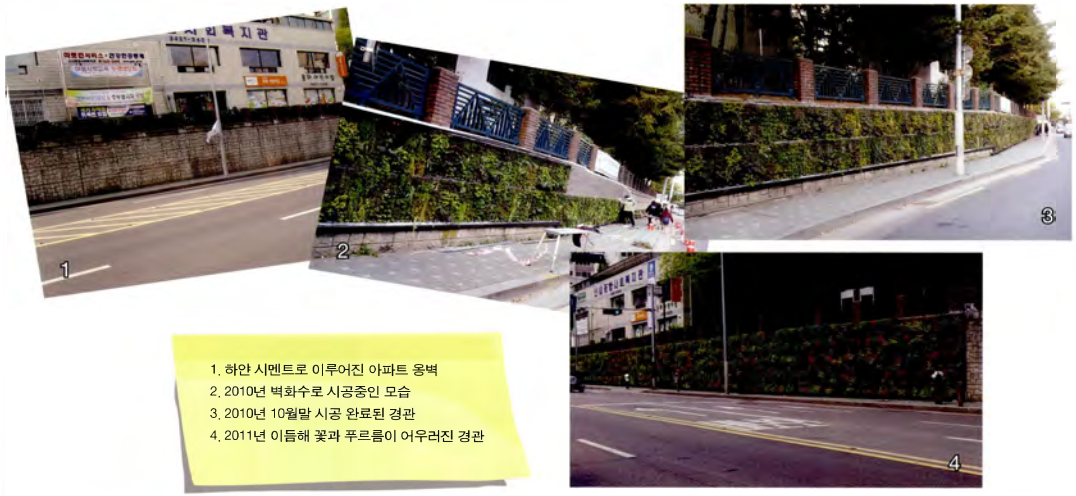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그 중 1년초와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적용되어 시민들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상의 경우 작게는 100평방에서 큰 곳은 1000평방까지 다양할 것이다. 작은 곳은 이용하는 시민의 수도 작을 것이고 큰 곳은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 것이다. 생활텃밭은 문화와 같이 반드시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군가 가꾸어 놓은 상추와 토마토를 얻어 먹겠지만 그 작은 나눔의 공간이 자신이 즐기고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일주일이 행복할 것이다. 그 행복한 이들은 옥상의 정원을 공동체의 문화코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옥상의 여름 한낮은 아무리 정원을 꾸몄다 하여도 30~40℃는 될 것이다. 옥상에 작은 방갈로와 방갈로의 지붕과 벽면이 수직정원과 식물로 꾸며진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휴식의 공간, 즐김의 공간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제 옥상에도 평면의 개념만 적용하지 말고 수직의 개념도 적용할 때가온 것이다.

빗물을 이용하고 좋은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곳이 옥상이다. 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오히려 어떤 정원문화보다도 좋은 소통과 휴식의 그리고 생산의 정원이 될 것이다.

이제 1차적 옥상 녹화시대를 마감하고 문화의 코드와 자연조건을 이용한 새로운 정원문화를 연출하고 그 주인공을 시민들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꽃과 정원과 채소는 우리사회에 아니 우리도시에 너무도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정원의 주인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시민들의 정원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1. 하얀 시멘트로 이루어진 아파트 옹벽
2. 2010년 벽화수로 시공중인 모습
3. 2010년 10월말 시공 완료된 경관
4. 2011년 이듬해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진 경관

현장의 정확한 명칭은 상봉1동 신내주공 12단지 아파트 옹벽으로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인도로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아파트옹벽은 길이가 약 150m로 면적으로 산정하면 370㎡정도가 된다. 하얀 시멘트옹벽으로 여타 옹벽처럼 매우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뿐만 아니라 인도 폭마저 좁아 답답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통행인들에게 볼거리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벽화수로 새단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시공은 2010년 10월 늦가을에 시작되었다. 설계로 시공하는 도중에는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였다. 인도폭(약 1.5m)이 좁아 설치시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한 뜻하지 않게 민원제기가 들어왔다. 주민들을 위한 녹화공사였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서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이다. 시공당시 인도폭이 좁아 통행의 불편함과 지금 시공하면 겨울철에 모두 동사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등... 물론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득에 나섰다. 시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11월이 되어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인지라 완벽한 효과는 다음해에 기대를 해야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봄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은 오히려 감탄사를 연발하였고 발주처인 중랑구청 관계자들도 대만족을 표시했다.

다른 벽화수 현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현장도 추웠던 겨울을 나고 완벽하게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식물하나 동해를 받아 고사한 식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먼저 삼색조팝, 황금조팝의 아름다운 새순이 돋아나고 그 뒤를 이어 꽃잔디와 상록잔디패랭이가 진분홍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양한 세덤류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고 중간 중간에 잎의 색감이 좋은 흰줄무늬대사초, 적엽철경이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봄, 여름, 가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파트 옹벽이 하얀 시멘트의 모습에서 푸르름이 살아 숨 쉬는 수직정원으로 탈바꿈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모두 바뀐 경관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일반적인 관리만 잘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관으로 매년 주민들 앞에 선을 보일 것이다.

벽화수는 어느 장소에서도 새로운 수직정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방도시 등 더 많은 곳에 보급되어 다양한 수직정원을 각 도시에서 감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시공전

시공후

주름잎아주가

Ajuga reptans 'Bugle'
꿀풀과.

활엽수 음지에 효과적이고 보라색의 봄꽃은 최상이다. 약간의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며 특히 건조에는 약하다. 비옥한 토양에서 더욱 좋은 잎을 보여준다. 주름이 들어간 잎의 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숙근아네모네

Anemone hupehensis
미나리아재비과.

가을 코스모스와 같은 우리 정서에 알맞은 고급 품종이다. 지하경이 뻗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식된다.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뿌리줄기에서도 맹아가 되므로 간혹 뿌리를 잘라주는 경우 효과적이다. 품종별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개화할 수 있도록 품종 및 특성을 잘 고려해 식재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해변국화

Chrysanthemum pacificum
국화과.

잎이 두껍고 잎의 뒷면에 하얀털이 밀생하여 아주 고급스러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품목은 꽃잎이 없는 두상화로써 무수히 많은 꽃대를 한꺼번에 피워낼 때는 벌과 나비의 천국이 된다.

음지황국

Chrysogonum virginianum 'Golden star'
국화과.

약간의 물기가 있는 땅을 좋아한다. 일부 활엽수림대의 가장자리에서도 생육이 강하며 지피력이 돋보인다. 노란색의 꽃무리는 꽃방석을 연상하게 한다. 겨울 건조에는 약하므로 겨울에도 극건조시에는 관수가 필요하다.

금계국 별무늬

Coreopsis grandiflora 'Domino'
국화과.

생육이 강건하여 어떤 토양에도 잘 적응하는 식물로 장기개화 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 금계국과 같이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꽃에 별무늬의 문양이 들어 있어 고급스런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황금개나리

Forsythia koreana 'Golden Leaves'
물푸레나무과.

황금색의 노란잎은 최상의 경관 관목이다. 여름에도 황금색이 잘 유지되고 특히 약간의 그늘에서도 발현된다. 일반 황색종에 비해 생육도 빠르다. 여름에 너무 건조한 지역에서는 잎이 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헬레니움 '레드'

Helenium hybrid 'Rubinzwerg'
국화과.

화색이 매우 강렬하다. 대면적 군식 혹은 축제용으로 알맞다. 토양을 별로 가리지는 않지만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국내에는 최근에 알려진 식물로써 혼합식재 여름 포인트 식물로 좋다.

겹꽃어성초

Houttuynia cordata 'Plena'
삼백초과.

지하경이 발달해 조밀하고 빠른 지피효과를 볼 수 있다. 아파트 혹은 건물의 반음지 등의 물기가 많은 지역 피복용으로 좋다. 꽃이 겹꽃으로 아주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식물체에 상처가 나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므로 주의한다.

꽃무릇 아리아

Lycoris radiata 'aria'
수선화과.

봄부터 초가을까지 휴면하는 식물로 8월말에서 9월에 잎이 없는 상태로 꽃을 피우고 잎을 내어 이듬해 봄까지 상록으로 자란다. 잎이 있는 기간은 물을 충분히 주고 액비를 주어 충분히 성숙하도록 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우리꽃에서 선발한 아리아 품종으로 이제 화색의 다양함까지 즐길 수 있다.

무늬수호초

Pachysandra terminalis 'Variegata'
회양목과.

활엽수 아래 혹은 건물 음지 지피용으로 좋다. 물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잎을 보는 식물이므로 영양제를 액비로 주게 되면 윤기 있는 잎을 볼 수 있다. 무늬가 들어 있어 고급스런 녹화를 연출 할 수 있다.

도라지 로세아

Platycodon grandiflorum 'Rosea'
초롱꽃과.

분홍의 로세아 품종은 엷은 핑크색으로 키가 작고 줄기가 굵어 쓰러짐이 적은 품목이다. 물빠짐이 좋은 건조한 토양에 심는 것이 정원용으로는 영속성을 유지한다. 배수불량 토양에서는 뿌리썩음병이 심하므로 주의한다.

꿩의다리

Thalictrum actaefolium
미나리아재비과.

대체로 비옥한 물기가 있는 토양을 좋아한다. 음지에 내성이 있으므로 수림대의 반음지에 적용해도 효과적이다. 겨울철 마른 줄기도 좋은 디스플레이 소재가 된다. 민달팽이와 건조지에서 흰가루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무늬부들

Typha latifolia 'Variegata'
부들과.

대표적 수중식물로 생태하천용으로 좋다. 무늬종이 있어 고급의 작은 연못 항아리에 심어 포인트 식물로 연출한다. 꼬투리를 익기 전에 가공하여 드라이플라워로 사용가능하다. 절화용으로도 좋다.

호피무늬큰고랭이

Scirpus tabernaemontani 'Variegatum'
사초과.

선이 좋은 대형의 수중식물이다. 특히 가로로 무늬가 들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더해 조경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품종이다. 땅속줄기를 기며 마디마다 줄기를 내므로 번식이 빠르다. 데크를 따라 열식을 해도 효과적이다. 침입성이 있으므로 작은 연못에는 화분 등에 심어 식재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입품종 또는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함으로 현장에서 조경용 소재로 숙근자피식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다년생 해바라기

숙근해바라기

"도로화단, 공원, 골프장의 큰 군락식재에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해바라기는 일년생이다. 그리고 그 품종 또한 다양하고 매우 친숙한 꽃이기도 하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해바라기는 일년생이 아닌 숙근성으로 겨울월동이 가능하여 1회식재로 매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소재이다.

'우리꽃' 에서 판매를 해온 숙근해바라기는 초장이 80~100cm로 기존 유럽에서 판매하는 숙근해바라기가 평균 120~150cm가 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에 비하면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강하고 벌개미취와 같이 땅속줄기를 뻗어 번식한다. 토양은 건조지나 습지를 별로 가리지는 않지만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는 줄기도 굵어지고 키도 좀 더 커지는 특성이 있다. 꽃은 7월에서 10월사이에 직경 7~10cm정도의 해바라기꽃으로는 작은 노란꽃을 피운다. 꽃의 형태에 따라 홑꽃과 겹꽃 두 가지 품종으로 나뉜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도로가에 열식하거나 공원의 보행로주변에 식재하면 좋고 특히 골프장 등의 대 면적에 대형 군락을 이루어 심고 다른 종류와 혼합식재시 뒷라인에 배치하거나 특히 봄식물과 혼성하여 심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대면적에 식재하게 되면 매년 새로 식재할 필요가 없는 해바라기 축제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아름다운 색감의 클로버

클로버 시리즈

"문양연출에 좋습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로버는 골치 아픈 잡초로 인식되어져 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난 식물이다. 간혹 중국을 여행할 때 거리화단의 수목하부에 클로버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버를 조경용소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호에서 소개했듯이 잎의 색감이 좋은 적엽클로버는 지피력이 뛰어난 소재로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장한 바가 있다.

이번호에서 다시 한번 클로버를 소개하는 이유는 적엽클로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로버 품종을 소개하고 그 이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바로 클로버 적엽, 트리칼라, 트라이앵글이 클로버 시리즈 3종이다.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적엽은 잎이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띄고 하얀색 꽃을 피운다. 그리고 행운의 네잎이 최소 30%이상 발견되어 행운의 네잎클로버라는 개념으로 축제의 한소재로 활용가능하다. 트리칼라는 잎 가장자리에 붉은색 무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분홍색꽃을 피운다. 트라이앵글은 잎 중심부에 약간 부정형의 타원형으로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 흰색 꽃을 피운다. 3종류 모두 포복성으로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도 잘 자라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나무아래 반음지에서도 피복식물로 이용하면 빠른 피복효과를 볼 수 있다. 3종의 클로버가 잎의 색감이 좋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디자인하여 문양을 연출하는데 이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빠른 효과를 위해서 포트묘 보다는 식생매트를 이용해서 현장에 식재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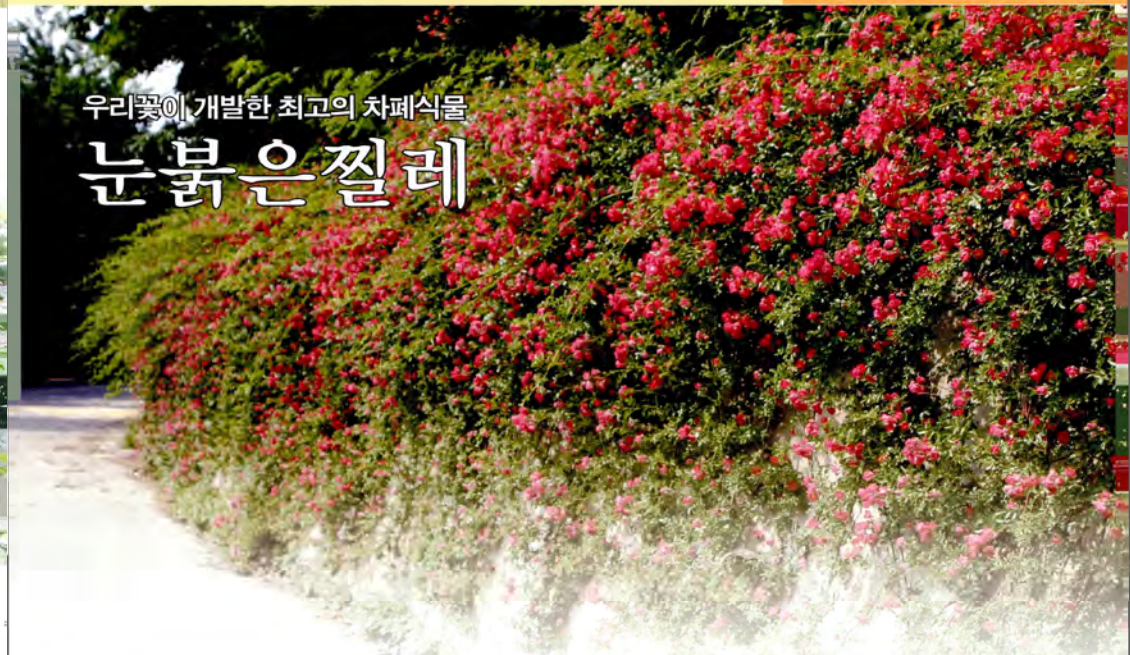
클로버 시리즈는 양지 또는 수목하부에 빠른 피복이 필요하거나 문양을 연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소재로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이다.

우리꽃은 창사이래 조경용 묘종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붉은찔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우리꽃이 개발한 최고의 차폐식물

눈붉은찔레



눈분홍찔레

눈붉은찔레는 옹벽녹화라는 기능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식물이다. 우리꽃은 용가시덩굴의 변이종을 발견하고 몇 년에 걸쳐 분리 고정시켜 바로 눈붉은찔레를 2002년 시장에 첫 선보였다. 옹벽녹화소재가 많지 않고 특히 위에서 식재하여 옹벽 아래로 내리는 소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대부분 덩굴장미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현장에서는 이를 충족해줄만한 소재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우리꽃이 옹벽차폐용으로 개발한 눈붉은찔레는 이러한 면을 해결해줄 대안이 되는 소재였다.

맨 처음 눈붉은찔레가 적용되었던 곳이 양지파인 C.C.의 입구쪽 옹벽이었다. 이곳도 항상 옹벽이 보기 싫은 상태여서 소재를 찾던중 눈붉은찔레를 적용하였고 1~2년 내에 바로 좋은 효과를 보면서 이곳이 바로 눈붉은찔레의 판매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만큼 현장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면서 그 기능성이 검증되었던 것이다. 이후에 골프장, 식물원, 아파트 옹벽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눈붉은찔레는 생육이 매우 강하고 순뻗음이 좋아 토양의 양분만 충분하다면 활착 이후 1년에 10m이상 자랄 수 있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지만 빠른 차폐를 위한 식재의 경우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자람을 빠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꽃은 6월초에 적색으로 피는데 포도송이와 같은 모양의 꽃차례는 30cm정도로 크고 마디마다 꽃이 땟힘으로 온통 꽃덤불을 형성한다. 또한 외대로 길러 둥글게 가지를 내어 꽃을 피우면 최고의 포인트 식물이 된다. 지금은 꽃이 분홍색인 눈분홍찔레를 개발하여 육성중이며 품종등록이 완료되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꽃이 개발한 눈붉은찔레는 최고의 차폐식물로 자람이 빠르고 꽃도 아름다워 현재는 기능성이 뛰어난 최고의 옹벽녹화식물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각종 코너에서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식물과 현장들이 소개되어져 왔다. 이번 테마시리즈에서는 이들을 총망라하여 식물별, 현장별로 주제 즉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그라스의 이해

그라스는 사초과와 화본과로 대표되는 선형의 잎이 주요 감상포인트로 쓰이는 품종군이다. 계절별로 과감한 변화를 주는 그라스는 정원에 새로운 변이 나타나게 하며 겨울경관에 수직적으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다. 품위 있는 초형과 호리호리한 화서와 줄기, 색감 있는 잎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라스는 생장 형태에 따라 포기가 점점 크게 자라는 종류와 지하경 생장을 하여 넓게 퍼지는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포기가 커지는 종류는 조밀하게 성장하여 형태가 매우 멋지게 형성되며 다른 군집으로 침입하지 않아 다른 숙근초들과 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하경 생장을 하는 종류는 땅속 줄기에 의해 퍼져나가 아주 공격적으로 침입성이 강한 종류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그라스는 금새 전체 지역을 덮어버릴 수 있으므로 잘 가꾼 화단에는 맞지 않는다. 그라스를 선택하기 전에 그라스가 어떻게 자라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식재후에 일어날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라스가 조경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라스를 모르면 이제는 향후 몇 년안에 뒤처진다는 것이 과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이 유용한 종을 중심으로 현장적용 예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라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재배

한번 자리 잡으면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 햇빛이 많이 들고, 촉촉하거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또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PH 범위가 5.0에서 8.0까지 다양한 타입의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비료는 거의 필요없다. 어떤 그라스는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라고, 어떤 것들은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므로, 생장과 휴면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매일 직사광선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내리쬐는 곳이 가장 좋다. 너무 음지에서는 이러한 그라스품종들은 꽃이 피지 않을지도 모르며, 느슨하게 자라고 잘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라스의 특징

- 그라스는 다른 가든 식물보다 토양을 상대적으로 가리지 않는다.
- 지피식물, 침식 방지 그리고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벌레와 질병이 거의 없다.
- 영양분 요구량이 적다.
- 봄 줄기 자르기를 제외하고, 관리가 필요없다.
- 빨리 자라는 경우, 3년이면 완전히 성숙한다.
- 말린 그라스는 실내외의 장식으로 쓰인다.
- 한 계절 이상 경관이 흥미를 준다.
- 그라스의 종자와 잎은 가을과 겨울의 감상 포인트를 더한다.
- 깃의털처럼 아주 얇고 고운 질감부터 큰 억새의 거친 느낌까지 다양한 질감을 준다.
- 잎 색깔의 범위는 녹색에서 청색, 노란색, 청동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다양한 범위의 색을 낸다.
-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이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효과가 있다.

□ 무늬염주그라스

그라스 중 가장 하얀색의 잎을 가진 종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생육이 극히 불량하거나 휴면에 들어가지만 서늘해지는 가을과 봄에는 매우 밝은 하얀색을 보여준다.

잔디밭을 경계로 라인식재 되어 있는 모습

패랭이류와 혼성식재 되어 붉은색꽃과 하얀색 잎이 조화롭게 색감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억새 모닝라이트

잎이 가늘고 긴 억새로 잎의 선형이 아름답고 전체적인 초형도 안정적인 억새

암석가든에 포인트식물로 한포기가 자리잡고 있다.

안정된 초형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선형의 잎과 붉은색 꽃대가 고급스런 모습을 보여주며 열식되어 있다.

큰 회분 중앙에 억새 모닝라이트가 식재되어져 있고 하부에 일년초로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 상록갈사초

진한 초콜릿의 브론즈색으로 흐르는 머릿결 같은 폼이 고급스럽다. 대형화분에 재배하여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으며 특히 특별한 공간연출에 최적의 소재이다.

박람회행사장에서 메인식물의 외곽라인 목으로 부소재로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식물원에 길경계선으로 점식 되어져 있다.

□ 파니쿰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잘 어울리는 그라스로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지하경을 뻗어 번식하고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분홍색 에키나 혼성식재 되어있는 모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라스화단 뒤쪽라인에 파니쿰이 고급스런 파랑색 잎과 은은한 하얀색 꽃두리과 멋진 경관을 연출하며 열식으로 식재되어있다.

혼합식재 화단에 식재되어 비온뒤 아름답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파니쿰.

□ 억새 그린라이트

그린색의 초형이 아름답고 가늘고 긴 선형의 잎이 멋스러운 경관을 보여준다.

보행로 계단 옆으로 열식되어 있는 경관

□ 아이스댄스

가죽과 같은 혁질의 잎에 크림색의 무늬가 뛰어나고 겨울에도 상록이며 내음성이 좋아 활엽수 아래 지피용으로 좋습니다.

암석가든에 난과 같은 초형의 아이스댄스가 돌 옆으로 식재되어져 있다.

□ 대사초 골든라이트

음지의 좋은 소재로 황금색무늬가 강렬하고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여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좋다.

일산 고봉로 수목아래 음지에 옥잠 엘레강스와 식재되어있는 모습. 골든라이트의 황금색과 엘레강스의 블루색이 아름다운 색감대비를 이룬다.

□ 플락카

카네이션 잎을 닮은 푸른잎 사초로 파랑색 잎은 매우 고급스럽고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로 매우 좋다.

푸른색의 질감이 돋보인다.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모습

□ 무늬갈풀 페세이

대형의 식물로 6월에 아름다운 무늬와 꽃은 6월에 최고의 경관을 보여준다. 대부분 수변식물로 좋고 대형의 군락식재에 유리하다.

강원랜드 골프텔 앞 정원에 고산의 느낌을 테마로 연출한 하단. 고목 양옆으로 하얀색의 갈풀 페세이가 고목의 어두운 색감을 바탕으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하얀색 무늬의 잎과 꽃이 최고의 절정인 6월의 모습

□ 털수염풀

그라스 중 대체로 빠른 봄에 효과적이며 꽃이 피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군식하거나 열식하는 대형군락의 형태가 아름답다.

고양시 도로변 교통섬에 무늬억새, 몰리니아, 털수염풀로 하단을 조성. 가운데 무늬억새와 몰리니아를 식재하고 가장자리에 털수염풀을 식재하여 단계한 모습

경미공원의 무지개 화단에 한 소재로서 털수염풀이 식재되어 멋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하코네클로아

하천이나 연못가에 심으면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음양지 모두에 잘 적응하고 그늘지역을 아주 밝게 해준다.

□ 무늬글리세리아

수변과 습지, 수중 어디서나 생육이 가능한 무늬종 식물이다. 무늬가 가을까지 좋아 이들만의 군식도 유리하다.

무늬글리세리아는 수중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수중식물로소 물속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 카가

밝은 숲속 혹은 양지에 좋다. 녹색의 잎은 질감이 좋고 매트형성이 좋아 지피용으로 알맞은 품종.

디딤돌 양쪽으로 다른 식물과 경계가 되도록 라인식물로 점식 되어있다.

□ 무늬억새

대형의 그라스품종으로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 억새로 단독, 군식, 혼식, 혼성식재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무늬억새가 암석가든에 포인트 식재되어 있는 모습

일산 고봉로 초화류 화단중 그라스로 조성한 화단으로서 무늬억새 포인트로 반복되어 식재되어 있다.

무늬억새가 둑쪽라인에 하얀무리를 이루면 군식되어 있다.

□ 좀새풀

섬세한 털 같은 모양으로 녹색의 아름다운 양잔디의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군식하면 좋다. 서늘한 계절을 좋아하고 건조에 약한 면이 있다.

식생매트로 하우스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습

□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노란무늬가 일품이고 포기벌음이 좋고 무늬가 좋아 하천 축방 등의 라인식물로 좋다. 양지에서 반음지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노란무늬의 무성한 잎과 여우꼬리모양의 꽃이 조화를 잘 이루며 식재되어 있는 모습

□ 무늬새

그라스 중 빨리 개화하는 종으로 혼합식재 등에 좋다. 봄에는 무늬가 가을에는 마른 잎이 아름답다.

▲군식으로 식재된 무늬새의 무늬와 의식이 머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시킨다.

▶암석가든에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

□ 억새 파랑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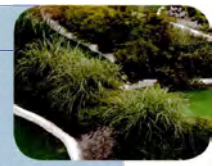
키가 작은 억새로 잎 전체를 블루톤의 질감이 좋고 군식, 열식, 포인트 식재 등 어디에 적용가능하다. 키가 작아 쓰러짐 없이 화단식재시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블루톤의 잎은 질감이 좋아 꽃이 피기전에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키가 큰 무늬억새 사이로 키 작은 억새 파랑새가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내뿜고 있다.

□ 억새 리틀제브라

잎에 가로로 호피무늬가 있고 일반 호피억새에 비해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라스 화단 중간 중간에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삼색조팝과 번갈아 식재되어 있는 모습. 봄, 여름에는 삼색조팝의 잎과 꽃을 감상하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억새 리틀제브리를 번갈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에버골드

상록성의 크림색 무늬가 좋아 분화용으로 혹은 조경용으로 뛰어나다. 건조한 숲의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소나무 아래도 생육가능하다.

에버골드의 무늬와 늘어지는 형태적 장점을 살려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심어 배치한 모습

암석가든의 돌옆에 포인트 식재한 모습

□ 파란김의털

잎의 질감이 좋고 햇빛이 좋은 배수가 잘 되는 건조지용으로 좋다. 질서있는 열식과 군락식재에 좋다.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식재되어있는 모습. 청색의 느낌이 매우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 홍 띠

붉은 잎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고급정원에 많이 이용된다. 강한 결속력으로 지피용으로 최상이다.

□ 흰줄무늬대사초

잎의 외곽에 흰줄무늬가 있고 음지의 좋은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해도 강하여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적용가능하다.

우리꽃과 사람들은 각계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경, 원예, 생태등에 관련된 주제로 자유로운 기고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이다.
-편집자주 -

우리꽃품평회 참관기

Pacific Plug & Liner 社

Marketing Manager _ Ryan Hall

우리꽃은 2009년 하큐산과 우리드림시리즈의 로얄티 계약을 시작으로 품종보호출원중이거나 품종보호등록이 되어 있는 신품종들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급추진 중에 있다.
이미 유럽에서 우리꽃의 신품종 패랭이와 코레옵시스 품목들이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그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더욱 적극적인 신품종의 프로모션을 위해 2011년 6월 해외업체들을 초대하여 우리꽃 품평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방문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우리꽃 품평회에 참석한 미국의 Pacific Plug & Liner社에서 보내준 품평회 참관기이다. -편집자주-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중인 황금일조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꽃의 주 품종인 우리드림 시리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Pacific Plug & Liner 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육묘 회사입니다. 주로 새로운 숙근초들을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국에 방문하여 우리꽃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독일 에센에서 열린 IPM에서 우리꽃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첫만남에서 우리꽃의 코레옵시스와 패랭이 신품종 등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런 대한성 강한 숙근초들은 정확하게 미국 시장에서 찾고 있는 상품들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후에 우리꽃의 초대를 받고 우리는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이천으로 가는 버스안에 제가 있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꽃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우리꽃이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경회사이며, 일본과 유럽에 이미 진출하였고 미국시장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우리꽃의 넓은 농장과 연구지를 돌며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품종들과 미래에 선보일 선발된 품종들이 몇몇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종들로부터 출현하여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품종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숙근초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덥고 습한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선발하기에 이상적인 기후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이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 있고, 한국의 기후조건에서 선발된 품종들은 미국에서도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꽃의 많은 신품종은 대부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고,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숙근초의 범위를 보다 더 넓혀주었습니다. 우리꽃은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상록이며 연속개화하는 상록잔디패랭이는 우리 고객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품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매년 California Spring Trials라고 하는 품평회를 갖습니다. 매년 이쪽 분야에서 신품종들을 선보이는 이벤트인데, 약 800명의 방문객이 우리 농장에 옵니다. 우리꽃의 신품종들을 선보이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내년에 저희 농장에서 우리꽃 가족들이 우리꽃 신품종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많은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꽃 신품종을 처음 보았을 때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베풀어주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대화와 우리꽃의 육종연구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족의 유산 토종종자 -2

(사) 한국토종연구회 고문/토종 씨드림
대표 안완식

토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종 식물들은 수천 년을 한민족의 의식주를 제공하여 온 한민족과는 불가분의 자원이다. 토종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생물로서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공학을 비롯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거나 신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의 기본 재료로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가장 값진 유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토종은 한민족의 얼이 배어 있는 생명체로서 민속 동식물이며 조상의 슬결이 역사 속에 살아있으며 민족의 향토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다.

둘째, 토종은 민족의 가장 큰 유산이며 생명공학 신품종육종, 생물학, 연구의 기본 자료인 유전자원으로 한국 토종은 세계에 유일무이하여 타국 자원 확보의 밑천이 된다. 한반도는 그 넓이에 비하여 식물의 다양성이 상당히 풍부하다. 국토 면적은 22만㎢로 세계육지면적의 0.163%이지만 고등식물의 종은 4,165종류로 세계 식물 종 25만 종의 1.67%나 되어 면적에 비하여 10배나 많은 분포를 보인다. 자생식물 중에는 411종의 한국 특산식물과 217종류의 희귀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 1,100종의 식용 가능식물, 941종의 약용식물, 산채식물 250종, 그리고 관상용 식물은 초본류가 500종 이상이며 관상용 나무는 130여 종을 넘는다. 그 외에도 섬유용, 염색용 등 용도의 범위가 넓다. 이 식물들은 한국 고유의 식물로서 이들이 갖는 중요한 성분, 특성들은 한국의 고유 자산인 것이다. 한국의 자생식물은 아열대로부터 온대 북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서 그 특성 또한 종의 분포만큼이나 다양하다.

자생종이 갖는 약용식물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 서양에서도 현재 25% 이상이 생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양에서는 50% 이상이 생약으로 치병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 1월 현재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육종한 신품종은 1913-2007년까지 2,477품종인데 그중 우리 토종의 피가 들어간 품종은 식량작물이 45%로 496품종, 원예작물 등이 24%로 327품종으로 총 34%인 823품종이 토종의 피가 들어간 품종이다. 그중 우리 토종의 피가 섞인 콩 장려품종은 43품종으로 모든 장려품종의 67%이며, 보리는 27품종으로 65%, 참깨, 들깨, 팥과 녹두는 100%가 우리 토종의 피가 장려품종의 근본을 이룬다. 생물다양성 협약 (1993. 12. 29)이후 유전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극히 심화되고 있어서 토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생물다양성 협약이 각국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토종보전은 지구환경보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지구상 생태계에 1,000만 종의 생명체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 고등식물은 250,750종이며 그들의 소멸속도는 하루에 50-100여 종씩 이라고 한다. 지구상 생물종의 소멸은 인구의 증가나 새로운 품종의 육성보급,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농민의 감소와 귀화 동식물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나 산업발전에 따른 공해의 영향 등이 주요인이다. 인구의 증가와 잔존 종의 수는 반비례하고 있으며 2100년대 세계인구가 110억으로 증가하면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50-70%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Soule, 1991). 한국에서의 토종소멸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환경청의 고시 또는 산림청의 선정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자생식물 중 소멸위기 및 희귀종은 현재 259종이나 되고 있다. 재래종의 소멸속도는 대단히 빨라서 안 등(1995)은 고창, 상주, 금릉 3개 지역에서 작물재래종이1985년부터 1993년까지 8개년 사이에 26% 정도만 남은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장려품종의 육성보급에 따라 재래종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1980년 이후 1990년까지 보급된 장려품종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985년을 100%로 볼 때 1993년에는 남아 있는 재래종들의 비율이 작물에 따라서 0-50%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아래글은 미국 GPN잡지에서 발췌한 기사글입니다. GPN은 Greenhouse Product News의 약자로 월간으로 발행되는 미국 원예전문잡지입니다. 원예산업의 기술과 동향을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보다 더 시장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도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잡지입니다.

-편집자주 -

업계의 신품종 품평회를 통해 본
올해의 트랜드

GPN에서는 50여개의 회사에서 신보인 올해 봄 신품종 품평회를 둘러보고 발견한 몇 가지 트랜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 봄 GPN에서는 한 주간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화훼 회사와 육종가들을 만나본다. 샌디에고 인근 엔시니타스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길로이까지 18개 지역을 순방하였다. 2011년 캘리포니아 봄 신품종 품평회에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본 몇가지 트렌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치를 더한다.

매년 신품종의 판촉과 홍보는 상품 그자체를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듯이 보인다. 지난 몇 년간 품평회에 참석하는 동안, 매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가지는 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었다. 육종가와 공급자가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 수준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어로 분구를 만들어 내거나(Ecke Ranch),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전시(Sunstory)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한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라벨, 화분, 다른 아이템들을 개발하거나 미니어처 식물상품을 선물용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여준다(Hort Couture). 소비자들이 색상을 보고 식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 사카타에서는 훌륭한 색상을 조합한 전시를 하였다. 신젠타에서는 꽃과 함께 음식과 와인을 활용하여 식물이 초콜렛처럼 "라이프스타일" 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새로운 기술에 밝아야 한다.

QR코드 예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에 편안해 하고 소비지출이 늘어가는 것처럼 원예산업도 이러한 기술과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농가와 육종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코드는 상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읽어들여 온라인에서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Benary 회사에서는 QR코드로 회사의 페이스북으로 바로 들어가서 상품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John Henry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Bloom IQ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가드닝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돕고 있다. JHC는 모델형을 제시해주고 판매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식용작물에 대한 욕구

지난 몇 년간, 많은 농장에서 생산라인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화훼산업은 점점 힘겹게 나아가고 있고, 소비는 기호품보다 생필품 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이 늘어가고, 농장에서도 채소와 허브식물 재배에 대해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볼(Ball Horticultural Co.) 사에서는 버피홉가든 라인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화분을 광고하는 것처럼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플로라노바에서는 한 시즌에 600~800개의 열매가 달리는 '체리폴' 토마토와 같이 새로운 채소 상품을 여러 개 내놓았다. 채소 카테고리는 사카타같은 회사뿐 아니라 가정원예 분야로 여러 회사에서 신품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뿌리썩꽃이를 하여 수경재배하는 토마토와 검은색으로 열려 성숙하면 밝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칠리고추 신품종 등 가정용 신품종들이 선보였다.

4. 효과적인 효율

ES78 시스템 소개

농가들은 생태친화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생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에크랜치에서는 증식사이클을 2주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여 주었다. ES78이라는 시스템은 특허재료를 이용하여 78구 트레이에 미리 꽂아둔 삽수를 이용하여 증식효율을 높일 수 있다. 프루브위너에서는 생분해성 화분과 PLA재료로 인쇄된 띠를 이용하여 퇴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볼사에서도 SoilWrap 바이오팩킹이라는 재료를 선보였다. 바닥이 없는 생분해성 화분은 이식충격없이 빨리 뿌리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화분이다.

- 원문기사: GPN 2011년 6월 호, Jasmina Radjevic and Tim Hodson

특허 제 10-0807285호

벽면녹화를 뛰어넘은 수직정원!!

원시스템 녹화공법 '벽화수'

벽화수는 도로분리대, 방음벽, 고가도로의 난간, 교각, 학교의 담장, 건물의 벽체뿐 아니라 건물의 곡면이나 기둥까지 도시의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1회 설치로 연중, 매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년생으로의 교체도 가능합니다.

벽화수 특징

호안, 법면, 벽면, 꽃탑, 꽃벽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도 한번에 해결됩니다.
콘크리트벽, 담장,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계펜스 등에도...

타일처럼 붙여만 주면 OK
지붕, 옥상, 하천사면, 방조제 사면, 암절개지에도..
매트처럼 깔아만 주면 OK
원하는 구조물, 원하는 문양이 있습니까?
그림 그리듯 쓰고 꽃아만 주면 OK

벽화수의 장점

- 쉬운 설치!!
  벽면의 타일처럼 붙여만 주세요!
  : 타일처럼 벽면에 부착만으로도 벽면 녹화시키는 간단한 시공방법
- 쉬운 관리!!
  물, 비배양분관리 NO! 잡초관리 NO!
  : 자동 타이머가 결합된 관수시스템 적용으로 물관리는 물론 비료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 됩니다.
- 빠르고 다양한 효과!!
  붙이는 방식으로 설치!
  : 붙이는 방식으로 빠르게 녹화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벽화수(주)
Tel : 031)712-7001,7119
Fax : 031)712-7991

※배경사진 : 남산1호터널 옹벽

2011년 5/6월호 광고 15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14 식물의 생활사 - ①

식물의 생활사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아남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전략으로 진화해왔다. 식물들의 기능과 생활사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종의 유지와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증식에 아주 중요하다.

식물의 생활 주기는 몇 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주기는 보통 물의 양, 대기의 온도, 그리고 낮 길이와 같은 계절적 변이에 의해 조정된다. 발아 이후에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성숙한 식물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린다. 한해살이 식물과 두해살이 식물은 이 주기를 한번만 거친다. 대부분의 다년초는 성장과 개화를 수 년 동안 반복한다.

1. 발아- 물, 빛 그리고 온기와 같은 요소들이 씨앗의 성장을 촉진한다.
2. 생장- 어린 식물의 식량 저장을 위하여 잎이 빠르게 자란다.
3. 성숙- 식물의 꽃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잎의 성장이 느려진다.
4. 개화- 꽃을 피우고 생식(번식)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5. 종자결실- 수정된 꽃이 씨앗을 간직한 열매를 형성한다. 열매가 익고 씨앗이 흩어진다.

종자의 발아

종자는 식물 생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종자는 자연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성장을 시작하도록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대 기후에서 많은 개화식물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다. 식물의 종자는 이러한 지역에서 봄이 될 때까지 토양에서 휴면상태로 있다가 낮의 길이 증가, 수분, 빛 조건 상승, 공기와 토양 온도 상승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발아한다.

많은 고산성 식물들 경우, 발아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저온처리를 해야한다. 어떤 종자는 가을에 반드시 실외에서 파종 되어야 하며, 겨울의 서리에 노출되어야 한다. 표면이 두터운 종자들의 경우, 표면에 흠을 내거나 문질러서 닳도록 하여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의해 휴면에서 깰 수 있다.

성공적인 발아는 보통 떡잎의 발생으로 알 수 있다. 떡잎과 줄기는 아주 빠르게 성숙한 줄기 시스템으로 성장한다. 이것의 첫째 기능은 광합성에 필수적인 햇빛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복합적인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포도당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물질 생산의 요소가 된다. 이런 복잡한 물질 중의 하나로 셀룰로오즈가 있는데, 거친 섬유질 덩어리로 강하고 유연하여 세포벽에 쓰인다. 다른 것으로는 녹말이 있다. 세포에 저장되며 이후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한번 식물체가 성숙하여지면, 줄기에 몰려있던 자원들은 생식기관형성-꽃, 열매(발아에 필요한 종자포함)에 집중된다.

양분의 이동

물이 뿌리를 통해 들어온 다음, 물은 미네랄을 잎 표면의 기공을 통해 산소와 물을 증발시키는 잎까지 운반하는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체를 통하여 끌어올려진다. 그 중 일부는 광합성에 의해 사용된다. 물의 공급이 줄어들면, 줄기의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시듦) 식물은 죽게 된다. 특히 뜨겁고, 건조하고,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로 증산이 심해지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도 토양과 퇴비를 침수시켜 성장을 억제하고, 심하게는 산소 섭취를 막아 뿌리를 썩히거나 죽게 한다. 반면에, 영양 과다(주로 질소)는 개화를 억제하고 잎을 과도하게 생장하도록 한다.

잘 발달된 뿌리 시스템

대지 아래 숨겨진, 뿌리시스템은 토양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의 지속적인 공급원을 흡수하고, 식물체를 단단히 하며 식물체의 건강과 활력에 필수적인 공헌을 한다. 원뿌리와 곁뿌리로 발달하거나 다른 것들은 수염뿌리를 형성한다. 미세한 뿌리털은 뿌리 끝에서부터 나타나며 각각의 뿌리의 표면에 광대한 표면적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건강한 뿌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항상 씨 뿌리고, 심기 전에 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토양공극이 충분하여 공기가 잘 통하는 토양에서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찾으러 넓게 퍼질 수 있다.